



남원시가 이백면 내기마을 중앙 암 역학 조사결과 보고회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 이백 내기마을 후속대책 신속 추진

###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대책 마련 등

남원시가 이백면 내기마을 중앙 암 역학 조사결과 보고회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허가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였다.

중앙 암 역학 조사반은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PM2.5 및 PAHs)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내기마을 주민들이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실내외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시행, 해당지역 주민의 흡연현황을 파악하고 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할 것을 암 역학 조사결과 용역보고서에 권고한 바 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현재 PM2.5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다핵방향족물질 (PAHAs)은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실내외 농도 저감 역시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교육·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환기 알림 문자도 수시로 발송하여 실내외 농도를 낮출 방침이다.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에 편백나무를 추가로 식재하여 오염물질의 외부차단 및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감시 점검단 활동도 강화한다. 대기상태, 취기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업체와 주민간의 대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한 지난 1995년 금음산업개발(유) 허가 당시 허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장허가를 해서는 안 될 지역에 허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해당사업장은 허가 당시 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음은 물론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서 높은 폐암 발생률

및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인 인과성 증명은 불가능하였다'라는 사항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와 보고서내용을 종합 분석한 주요결과로써 "주민 40여명의 마을에서 15년간(1999~2013년) 발생한 6건의 폐암사례만을 분석하였고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중앙 암 등록 자료는 1999~2013년만 존재하여 공장기동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비교가 불가능했으며, 환자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의무기록조사 등 정밀한 자료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참고자료를 인용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용역결과 설명회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지자 남원시가 나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과 수시 대화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기마을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이 귀농귀촌의 핵심사업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최근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서 군의 귀농귀촌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순창군,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나서

### 만 26세 이상 65세 이하 · 군에 주소 둔지 2년 이내

순창군이 귀농귀촌의 핵심사업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최근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서 군의 귀농귀촌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구립면 월정리 사골길 113, 소득개발시험포 내 주택 10세대와 실습농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룸 6개, 아파트형 주거시설 2세대, 복층형 주거시설 2세대가 들어섰다. 실습농장은 1세대당 100㎡ 규모로 만들어 졌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영농실습이 가능한 소규모 농장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귀농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2015년 사업을 착공해 최근 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12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군은 이번 사업 완료로 주거와 영농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심리농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군은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입주자격은 귀농귀촌 의사가 강한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가족세대원 2인 이상부터 입주 가능하다.

만 26세 이상 65세 이하로 기존 귀농귀촌인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 둔지 2년 이내여야 된다.

순창군 귀농귀촌교육 이수자나, 순창군 관내에 농지를 구입해 놓은 신청자 청년 층 등을 우대한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까지 순창군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계 전화 063-650-5172 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와 농작업 실습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체재형 실습농장을 완료했다"면서 "순창에 와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성공적으로 귀농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해 올 10월말 귀농귀촌인구가 871명을 기록해 지난해 620명을 이미 29% 넘어섰다. 군은 12월이면 1,000여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 인문콘서트

### 내일 오후 7시 순창향토회관 공연장서... 여인의 향기 등

순창군립도서관이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순창향토회관 공연장에서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하는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이야기'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순창군이 기획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함으로써 마련된 행사로서 피아니스트 이제찬, 바이올린 연주자 이보경, 소프라노 이명희 등 7명의 음악가가 참여하여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오페라를 소개하고, 동영상을 함께 실제 연주를 감상해 봄으로써 색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콘서트는 '미션', '여인의 향기', '피아니스트' 등 영화를 다룬 1부와 명품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한 리프렛토, 잔니 스키키, 사랑의 묘약 속에 흐르는 명곡을 살펴보는 2부로 구성됐다.

피아니스트 이제찬은 예원,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작곡법 최우수 1등상,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반주학 및 실내악 최고 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 1등상을 받고 졸업한 천재적 음악가로서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고, 국



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번 콘서트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립도서관(063-650-5678)으로 하면 된다.

순창군 문화관광과 실주원 과장은 "문화는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잠들어 있던 새로운 감성과 민명을 일깨워 일상을 덜 힘들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순창군에서 준비한 인문콘서트의 함께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호응'

### 퇴비살포기 · 콩탈곡기 등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농기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시작하여 2012년 인월에, 2013년에 급지에 2015년에 사배분소를 개설하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결과 현재 7,359회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퇴비살포기 · 콩탈곡기 · 소형굴삭기 · 논두렁조성기 · SS기 · 관리기 등의 임대활용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임대회수는 하루 평균 22대정도이며 영농철에는 59대 정도를 임대해

활용하는 등 고품화된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처럼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연1~2회 이용하는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는 대신 수리비가 들지 않고 또한 저렴하게 다양한 농기계를 토요일, 일요일에도 언제든지 빌려다 쓸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고장 시 즉시 출동하여 수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수요가 많은 논두렁조성기, 콩탈곡기, SS기, 관리기 등을 영농철 이전에 50여대를 추가로 구입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지역 내 도로공사 추진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내 도로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지원지방도 · 지방도 건설공사는 3개구간에 총연장 22.7km, 총사업비 178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은 내년에 127억원을 투입해 도로공사를 추진한다고 12일 전했다.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40호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공사는 고창읍 석정리에서 장성군 북이면 문안리 구간 2.65km에 총 353억원이 투입된다.

이 공사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017년에는 76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일 착공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 고창~내장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신림면 세곡리에서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구간 13.15km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1039억원이 소요된다.

내년에 신림면 세곡리~도림리 구간 5.4km 1공구를 4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 일할 후 적격심사 중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도계~장성 국지도 건설공사(국지도 15호선)는 고창읍 월산리에서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구간 6.9km에 2차로 시설 개량 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389억원을 투자하고 2017년도 1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중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 작은별 영화관, 소년 합창단 실시간 중계

### 18일 오후 5시 서울예술의 전당

임실함마당 작은별 영화관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파리나루 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작은 스크린(SAC On Screen)' 영화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중

계는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 우수 공연과 전시를 문화 소외지역에 보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공연 실황을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그동안 공연을 녹화 후 가공해 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을 상영했지만, 이같은 작품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공연 소요시간은 약 100분으로 선착순 무료입장(2관 53석)이 가능하다.

한편, 예술의 전당 실황중계는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관람된 자세한 사항은 임실함마당 작은별 영화관(0644-705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다섯거리 교육 종강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업과 농촌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추진한 '다섯거리 교육'의 종강식이 열렸다.

지난 10일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다섯거리 교육 종강식과 지식농업 페스티벌'은 박우정 군수와 교육생, 지역 내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섯거리 교육생 개근상, 공로상 시상과 지식농업 페스티벌 공모에 참가한 20명의 농업인들의 사례발표를 통한 5명의 지식농업인을 선발 시상했다.

특히 김영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래농업과 농촌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다섯거리 교육은 먹고, 자고, 즐기고, 보고, 사는 다섯거리를 연결해 다양한 고창지역 발굴과 6차 산업화를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달 셋째주 토요일 자정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10여 차례 진행됐다.

지식농업 페스티벌은 지식농업인 선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독창적인 농업기술 보급, 농업혁신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2017년부터는 전국단위로 추진해 고창군이 지식농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다섯거리 사업을 내내에도 더욱 발전시켜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인 천년의 보물창고 팜팜스테이션 사업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농촌관광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표준화, 체계화, 네트워크화하면서 고창군 브랜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관촌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관촌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문재)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관촌면 문화의 집에서 '2016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개최식을 시작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선보이며 프로그램 중간마다 지역 가수들의 공연과 경품 추첨을 실시해 행사장을 찾은 200여명의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고문재 위원장은 "내년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철 면장은 "주민들이 그동안 감추었던 끼를 발산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내년 정유년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면민이 하나 되어 더 발전하는 관촌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촌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평가해 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운영 중인 풍물, 난타, 민요 8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촌면사무소(063-640-4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경찰 홍보물 점검 · 교체부착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12일부터 터미널 등 다수 주민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진출하여 기 부착된 포스터나 홍보물 훼손여부를 점검하고 교체부착하고 주민상대 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다양한 방식의 금융사기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령대별, 직업별로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예방요령을 알리는 주민 맞춤형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경찰에 따른 20~50대는 대출사기, 60대 이상은 자식을 핑계로 자식이 "돈을 빌려 못 갚았으니 대신 갚아라",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주라"라는 수법으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또한 농촌이 풍성해지는 시기를 틈타 현금을 냉장고나 집안 서랍에 보관해야 한다고 속여 직접 집을 찾아가서 절취하는 절취형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규운 서장은 "금융사기는 무엇보다 의심이 되면 신고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평소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